

제 197 호

연중 제22주일

1976. 8. 29.

#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감론 ●



##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

김 이 환 신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마르코 7, 1-5)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속하는 법규들을 등한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제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예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당신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7, 8-9) 하고 율법학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신 기회를 포착하였기 때문이었다.

전통은 단순히 법규상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전통은 관습과 사례를 규정하거나 예의 범절을 제정하고 자 개인의 행동거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은 인격적인 것으로서 외적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미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의 전통을 묵살하고 새로운 계율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역할은 질보다 양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랑의 계명은, 특히 신앙과 하느님과의 영적 대화 안에서 전통을 생활케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에 적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져온다. 바티칸 공의회 이후, 단려진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자 갑자기 불어닥친 새로운 공기의 찬바람에 기침하고 감기 걸린 사람, 폐염을 앓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열린 창문으로 보인 현실세계는 죄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였다. 교회는 이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세상에 직접 뛰어들어야함을 알게 되었다.

교회나 사회는 항상 움직이고 전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과 모순을 경험하고 있다. 교회도 공의회 이전과 현재에 있어 견해의 차이는 심각하다. 집단적으로도 가치관이 분열되었고 개인적으로도 가치관의 일관성이 약화되어 때로는 “사고의 구획화(區劃化)” 현상마저 보인다.

한국의 지식인들과 청소년들이 탈(脫)전통 사회를 원하는 것이나 혁명신학이 탈(脫)신비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양성 있는 의견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

기성세대는 현대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문제와 신학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성적인 자기비판과 대화와 전향한 가치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

(합열 본당 주임신부)

□시대의 징표□



## 소 귀에 경읽기 (牛耳讀經)

8월 18일의 판문점 사진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만행(蠻行)이었다.

세계의 공산집단 가운데 가장 저질이라는 북한 공산집단. -동족한테 이런 표현을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그들의 眞面目을 절감(切感)할 수 있었다. -그것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비명에 희생된 두 미군장교의 명복을 빌고, 중경상을 입은 한·미 장병들의 쾌유를 빌며 韓國天主教中央協議會(C.C.K.)는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人道主義를 근본적으로 저버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최후의 순간에나마 이성과 양심을 되찾아 무력저항의 망상을 버려라.

-31년간 계속하여온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허위선전과 기만술책의 정체를 세계 자유인은 똑똑히 알고 있고 속물자 하나도 없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제라도 음흉한 기만술책을 버리고 진실에 바탕을 둔 해결을 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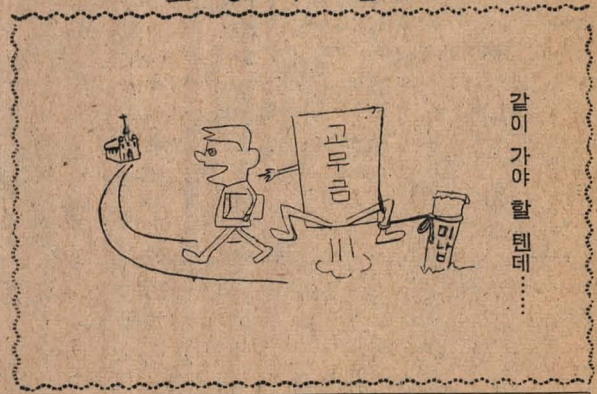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만행을 자행해 놓고도 적반하장격으로 그들의 전군에게 전투태세 돌입 명령을 내렸다. 이는 포악무비의 평화교란이라고 단정, 규탄한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즉각 전쟁 광신을 포기하라.

-인도주의와 民族愛의 이름으로 최후의 맹성을 추구한다.」

소 귀에 경읽는 소리로 그치지 말아야 할텐데……

“칼을 불에 녹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들 것이니, 나라끼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전쟁 훈련도 하지 않으리라” 한 성경 말씀이 채워지도록 기도 하고 노력하자.

## 숲정이 산책



□대화의 광장□



# 탁아소 대지 매입을 위한 바자회를 엽니다.

十 聖體안의 結合을 빌며  
성체회 수녀원이 발족한지도 어언 20여년이 지났습니  
다.

특히나 1966년 전주에다 호남지역의 단하나인 방인(邦  
人)수도회요, 수녀원 본원으로서 자리잡은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끝에 250여명의 수녀들이 방방곡곡에  
서 복음과 사회의 빛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1970년 성남(城南) 탁아소(새싹 어린이집)를  
개원하여 천여명의 어린이를 양육 보호하였고, 현재  
140여명의 어린이를 수녀 7명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아소 대지(636평) 매입문제로 애로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때에 화백(畫伯)山谷 柳鍾相선생의 동양화  
50여점을 기증받아 용기를 얻어 다소의 해결책이 될까  
하는 희망을 품고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이라도 사회사업에 참여하는 뜻에서 참석하  
여 주시옵기 바라나이다.

聖體會 修女院 總長 박 미카엘라 修女 울림

전시품	동양화, 수공예품, 들공예품(구유세트 등)
장 소	전주 가톨릭 센터
기 간	9월 4일(土) — 8일(木)

□전국대회를 마치고

## 감사합니다

이 태 영(베드로)

금번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한국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지부 협의회에서 주관하여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그  
리스도께」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22~23일에 전주 전동  
성당에서 500여명의 형제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무사히  
끝을 맺게하여 주시어 하느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이에  
협조하여 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회준비의 고충을 알으시고 식기류와 칩거, 각종 집  
기를 빌려 주시겠다고 전화로 또는 직접 가지고 오신 분  
들에게 눈물경도록 고마웠습니다.

시설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고 위  
로하여 주시어 이 큰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대회를 통하여 훌륭한 형제를 찾고 프란치스  
코 정신을 알리게 되어 크게 소족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큰 행사중의 하나로 이누갈다와 유요안  
부부 동정 순교자의 초상화와 기도문을 만들어 하루 빠  
리 시복되도록 매일 기도를 부탁하고 순교자모를 참배하  
고 미사봉헌도 하였습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시복에 도움이 될까 하여 참가자 들  
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의 시복은 한발자국씩 가  
까워 지는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순교자들을 위  
하여 생활을 개선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전북지부 회장)



# 복자성월을 맞으면서

김 영 구 신부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가 있었습니까? 환난이나 역경이, 박해가, 굶주림과 험  
벗음이, 혹 위험이나 칼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  
갑니다. 도살당한 양처럼 친대받습니다.” 라는 성경말씀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  
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  
의 것도 능력의 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의 어떤 피  
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에 수안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사  
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로마서 8장35-  
39절)

9월 복자성월이 다가왔습니다. “벗을 위하여 자기 목  
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요한 15장  
13)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우리  
순교자들은 그들의 영웅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후손  
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승에 태어  
났다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고 천대와  
구박을 받으며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앗기고만  
사람들을 어떻게 모시는겁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나를 따르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마태 16장 25)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입니다.

인간중에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권력과 재물을 싫어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모든 아까운 것을,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배교  
란 말 한마디, 시늬 한 번이면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을  
것을 모든 재물과 부귀 영화도 버리고 순교의 길을 택하  
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하느님의 말씀  
을 받들지 않고 오히려 현세적 이익과 안일만을 이기적  
으로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  
었는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정신병자  
였습니까? 천치나 바보였습니까? 그분들은 남녀 노소  
모두가 기쁘면 노래하고 슬프면 서러워할 줄 아는 정상  
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승에는 눈이 멀고  
하느님과 그 나라에 마음이 팔렸었습니다. 우리 복자들  
의 죽음으로써 얻어진 숭고한 승리는 언제나 진리와 사  
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렬한 기도와 자기생활의 철저한 개선으로서  
순교자들의 유덕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 교향 여러분의 집 \*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로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 6094

□ 교리교실 ⑨

# 고린토 후서

김 태 윤

저자와 수신인: 저자는 사도 바울로라고 하는 것은 본 서간에서 밝힌 것으로(1,1) 학자들 사이에도 이의가 없다. 고린토 후서는 바울로의 친작이며 가장 바울로적인 서간이다. 수신인도 서두 인사에서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와 아카이아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1,1)

집필 장소 및 연대: 본 서간 2,12 이하와 7,5 이하에서 볼 때 바울로는 에페소를 떠나 마케도니아에서 티토를 만난 다음-57년 가을경-에 이 편지를 썼다.

집필 동기: 바울로가 고린토에 보낸 편지는 모두 네통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신약성서에는 두통만이 전해지고 있다. 고린토 전서는 둘째번 편지요, 고린토 후서는 넷째번 편지다. 셋째번 편지는 고린토 전서를 보내고난 후에도 거짓 선교사들이 바울로 사도를 이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토를 방문했으나 그들의 방관적 태도에 상심하고 돌아와 「번민과 불안한 마음으로 울면서」 서한을 기록했기 때문에 (고린후 2,4) 「눈물의 서한」이라고도 한다. 이 서한을 보낸 결과가 좋아서 바울로는 기쁨과 위로를 받고 답례로 고린토 후서를 보냈다.

내용과 신학: 본 서간은 바울로와 고린토에 있는 반대자들과의 대립동안에 집필된 것이다. 그래서 반대자들에게 침투되어 있던 영지주의적 종교 세계관을 반대해서는 쟁했다. 이 편지는 세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1,12~7,16: 고린토 교회와의 우호적 관계 회복을 만족하게 생각하며, 반대자들에 대한 자기 변호가 연결되어 있다.

② 8,1~9,15: 예루살렘 모(母)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을 다루면서 모금 자체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기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회사는 자진해서 해야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모범이다(8,9).

③ 10,1~13,10: 다시 반대자들을 거슬러 격렬한 논쟁을 벌인다. 특은을 나열하지만 이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바울로는 자기 변호에서 투철하고 광범위한 교의 신학을 전개한다. 신약의 교직은 자유와 진리 및 영신을 위한 봉사로서 구약을 초월하여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말씀이 전파되는 동안에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의 사건으로 실현된다. 은혜와 화해 및 생명을 주는 말씀인 설교는 과거의 구체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하느님의 은혜로운 업적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하나의 현실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을 통해 하느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와 상봉하시며, 또한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 안에서 몸소 역사(役事) 하신다(5,19). 하느님의 역사는, 바울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나약성을 초월한다. 이것이 새창조다. 「묵은 것은 물러가고, 보라 새것이 이루어졌도다」(5,19)

고린토 후서는 사도 바울로를 통해서 환난받는 모든 이에게, 특히 고통받는 사제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안겨주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서간이기도 하다. (副祭)

## 요심이 (16)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임금님 찻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 원 준 (야고버)

★ 교우 여러분께 특별할인 우대★

후·칼라·출사환영

### 현대 사진관

전주 역전 오거리  
전화 ⑤ 5 2 8 9  
김 금 순 (메레사)

### 한국 온수 연탄 보일러는

교형 여러분의 집을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방을 수리하실 때나 집을 지으실 때는 교형 여러분의 집

### 부활상회

연락처 전주시 전동 가26-174  
송악국 옆 매곡교 사거리  
전주지점 대포주원배(실베들)  
전화 ⑤ 2 1 4 3

\*교우들의 선물 센터\*

전자, 새살림, 기념품, 완구

### 아세아 종합 스토아



강영옥 (로모알드)  
남문 신탁은행 앞  
전화 ⑤ 4 0 0 7, ⑤ 7 0 0 7

☆ 이(齒牙)는 오복(五福)의 요건 ☆

## 수석(水石) 치과의원

원장 김 현 (아오스명)

전주시 중암동 3가42-1  
<박 소아과> 앞  
전화 ② 1 6 6 5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등 압 (모이세)

금암동 ⑤5614 군산 3032  
다가동 ⑤4342 부안 736  
전 동 ⑤2143 정읍 2157  
☆ 각 지방 지점 구할 (제약금 없음)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조국과 고향을 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한 합동 미사(8월30일(월)오후8시) 전주 중앙 천주교회 ※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추석절 합동 미사 봉헌 ① 추석절을 맞이하여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합동미사를 봉헌합니다. ② 합동미사 예물은 전액이 특별목적(순교자 기념관 건립 등)에 사용됩니다.
3. 한국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전국 총회 (9월3일(금)-5일(일), 마산)
4. 타이스대지 매입을 위한 바자회 (9월 4일(토)-8일(수), 가톨릭센터)
5. 이층은 목적을 위한 바자회(2면 참조)에 많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협조를 바랍니다
6. 혼인 문제에 대한 법적 상담일 (9월 1일(목)-지난주 공지사항의 9월 3일은 9월 2일로 바로잡음)  
상담자-안복진 신부

(중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수석보좌 신부 한 불 성  
          사 도 회 장 이 상 용

소근호, 이영식, 정정배, 안종열(5만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 장 조 성 호

- ★ 교무금을 완납하여 주님 사업 협력하자!
1. 추석 (9월8일) 합동 위령미사: 먼저 가신 분들의 명복을 하느님께 기원합니다.
  2. 사도회 월례회: 5일(일) 공식 미사후
  3. 방지거 삼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30분
  4. 성심 부녀회: 3일(금) 어머니 미사후
  5. 주일학교 개학: 4일(토) 오후 3시
  6. 성모 유치원 개학: 2일(목) "반갑습니다!"
  7. 35사단 추석 위문 미사: 4일(토) 오후 2시
- ※ 수고하는 군인들을 정성껏 위로해 줍시다. 각 단체와 교우들의 크신 협조를 청합니다. <본당 사도회>
8. 이누갈다 묘지 제대 건립 헌금: 이복석 10,000원, 김병우 5,000원, 오재희 5,000원, 박남주 3,000원, 인자하신 모친 pr 4,300원, 익명 5,000원, 누계 37,300원

1. 성당 도장 공사 및 복자 기념실 공사중-미신입자는 속히 신입해 주세요.
2. 교무금이 미납하신 분은 본당 운영과 결산(9월)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첫 영성체 희망 어린이는 다음주일까지 사무실에 등록 바랍니다.
4. 추석(9월8일) 합동 위령미사: 각 가정은 빠짐없이 미사에 정성을 모아 봉헌합니다. ※ 접수처-사무실
5. 9월은 복자 성월: 매일 미사후 합동 성월을 바치오니 미사에 많이 참여 합시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사도 회 장 조 해 형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 장 박 장 춘

1.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전자 울겐" 미사안내 "아크릴판 제작"에 협조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성시간 2일 오후 8시. ※ 오알벨도신부님 강론.
4. ※ 구역장님께 알림-각 구역회장님은 해당구역 반장님들의 명단을 8월 31일까지 본당에 제출 바랍니다.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구역장 및 반장님의 참석 바람)
2. 추석(8일) 합동 위령미사에 각 가정은 선영(부모, 형제, 친척)을 위하여 빠짐없이 봉헌합니다. <9월 5일(주일)까지 접수 마감>
3. 반회합 일정..14일(화)-5만, 15일(수)-6만, 16일(목)-7만, 17일(금)-8만.
4. 다음주부터 미사 시간 변경: 아침 5시30분→6시로 저녁 8시30분→8시로.
5. 도장 공사 헌금 신입자: 김재열(3만원), 이정빈 3만 5천원, 강경표(1만원), 정형섭(각 5천원) 서명희, 김용호(각 3천원), 서계남, 유이슬, 유동식, 조선봉, 박옥자, 손영순(각 2천원), 김경자, 김우노, 손옥준, 설판순, 임광택(각 1천원) ◎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 장 김 용 환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 장 양 윤 모

1. 사도회 확대회, 신증조합 임원회: 5일 공식 미사후
2. 추석(8일) 합동위령미사 9월 7일까지 본당에 접수 바람(본당에 봉헌 봉투가 준비되어 있음) 한 가정도 빠짐없이 위령미사에 봉헌 합시다.
3. 미산 공소 학생회 조직: 회장-유승길, 부회장-김용연, 정양래, 총무-주금순, 서기-원주환,
4. 성당 건립 성금 신입: 아직 미신입자는 8월 말일까지 신입해 주세요. ※ 지난주 신입-엄기섭 (2만원:계 5만원), 김찬수(7천원), 최옥금, 강세형, 이태만, 유효근, 주금순, 김동철(각 1만원), 이수옥(3만원) 김동년(10만원), 김운근(1만5천원), 유성조, 최인자(각 5천원). 박영규 성우회 대표 홍성철-박석규,

1. ◎ 예비자 등록 신청 요망함: 교리시간→남자 청년 <수> 밤 8시, 남자 어른<금> 밤 8시, 여자 어른<수> 10시 미사후, 중·고등학생 <주일> 9시 미사후.
2. 추석(9월8일)가정 위령미사 봉헌: 오전 5시반, 10시, 저녁 8시
3. 공식 기도(아침, 저녁, 목주, 삼종 기도) 바치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4. ★평 주일 헌금 10만원 돌파 ★ 감사합니다.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창 계 류 인 음	신광 공소 방문	4,340원	제 3 지구	주 현 동 창 인 등	상임 위원회	51,245원
		유아 세례 공소순회미사	21,041원			어머니 성심회 월례회 신심단체 간부 회합	53,285원 7,600원
제 2 지구	야 동 동 중 합	미사시간 배안 유아 영계 어린이 성세식 고봉 공소 방문 및 미사 ★축, 카리타스회 창립	15,115원 61,75원 28,740원 18,090원	제 4 지구	중 노 송 등 덕 복 자 등 전	35사단 추석 위문미사 형제회 월례회 공소 학생회 조직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다음주 사도회 월례회 공식기도 바치기 운동	92,360원 29,835원 16,295원 27,870원 18,980원 105,030원
		사도회 임원 모임 각 분과 위원회 월례회 정성어린 봉헌금을 냈시다. 미사시간 변경	52,00원 16,236원 7,765원 16,280원			요나회 모임 ★영세자들을 축하합니다.	11,975원 9,585원
제 3 지구	산 산 산			제 5·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임	관촌 신자 재교육 실시	5,385원